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다. 예전 법에서나 현재 법에서나 대한민국 법은 성매매 행위를 금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성행중이다.

성매매특별법 도입 후 1년 법적 소송시 과거와 달리 여성들에게 호의적

글 _ 이 희 애 · 막달레나의 집 현장상담센터 소장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작년 이 즈음의 혼란을 기억할 것이다. 법이 시행된 9월 23일부터 한 달간 경찰의 특별 단속이 시작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성매매집결지역은 일제히 소등하였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 꺼진 성매매집결지역을 지켜보는 것은 활기 넘치는 붉은색 불빛속의 그 거리를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감성을 자아냈는데 그것은 그곳이 어떤 여성들에

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살림집에서 불을 켜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벌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후에 다시 불 켜진 그 거리를 보는 것도 여전히 속편한 임은 아니다.

법 시행 초기 미확인 부작용 찾기에 혈안이었던 언론

단속을 실시하고 채 반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뜸새 윤락 확산'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 단속이 시작된 바로 당일 '뜸새 윤락 확산'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연이어 '단속의 사각'이니 '월정 성 접대 기승'이니 '모텔, 대부업 등 도미노 부도 공포', '성매매 주력가로 파고든다', '관광업계 울상' 등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담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런 보도들과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대책을 묻는 질타성 기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법이 대단히 심각한 결함을 안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기여했다.

법이 정착하기도 전에 결과 문의 빗발쳐

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화의 경험을 묻는 전화와 새로운 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요청에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을 무턱대고 수치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도 그랬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탈성매매하여 자활의 과정에 있는 여성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는 지절하는 당사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해오기도 했다.

문의와 요청의 주체는 기자나 주무부처 관계자 등에 국한되지 않았다. 수업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방문이나 인터뷰를 희망하는 학생들, 성매매방지법을 개인의 자유 제한으로 받아들인 일반 시민들,

새로운 법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차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대로 공화국과 유사한 법안이 여러 법안이 제정된 이상주의 열기 속에서 법안이 제정된 후에 국외까지도 고려된 이상으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탓에 생활이 열악해진 성매매 여성들,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탈성매매를 고민하게 된 여성들까지 실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성매매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사자 여성들은 법 시행 2주 만에 전국에서 모여 새 법에 저항하는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위가 몇 차례 더 있었고, 이 힘의 한 줄기가 다른 영향력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활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졌다. 작년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민·관·학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새 법의 정착과 개선을 위해 정말 마흔계를 움직이고 있다.

여성들 인권을 찾기도 또 다시 소외되기도

새로운 법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자면 법의 보호 아래 인권을 찾게 된 여성들이 있고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다시 소외된 여성들도 있다.

진자는 새 법의 성과이고 후자는 한계가 된다고 하겠다.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법이 시행되고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원이 정말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새 삶을 선택할 힘이 되고 있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때 역시 예전과 달리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여성들에게 호의적이다.

물론 아쉬운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내가 알기론 지금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도입 후 이제 1년이다. 이 1년 동안의 경험이 다음 1년을 위한 시간들이었다면 지난 1년을 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마흔계를 움직였으니 이제 다음 1년엔 더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